

회원사 식구가 되었습니다

본 지면은 한국광학기기협회에 가입한 신규회원사를 소개하는 면이다.

지난달에는 (주)KJ프리텍, (주)씨비엘(CBL) 등 2개 업체가 본 협회의 새로운 식구가 되었다. 회원가입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본 고에서는 이들 업체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주)KJ프리텍

첨단정밀가공 기술개발에 집중, 기술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



▶KJ프리텍의 홍준기 대표이사

(주)KJ프리텍(대표·홍준기)은 초정밀소형금형의 설계·제작과 소형 플라스틱 정밀부품의 제작·조립을 전문으로 하는 첨단 전문벤처기업으로서 日本 樹研工業(JUKEN) 등 전 세계 8개국 협력회사들과의 오랜 협력관계와 자체 축적기술 및 Know-How

로 동종업계에서 수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가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IMT2000용 휴대단말기·PDA·게임기 등의 경량화·슬림화에 필수적인 Front-Light 방식 LGP(Light Guide Plate), LGB(Light Guide Bar), BLU, Lenz 등 광학부품분야에서도 빠른 시간 내 양산에 착수했다.

기술력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KJ 프리텍은 광학부품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Front-Light 방식의 LGP와 LGB 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Lenz 등 회사 차세대 핵심 추진분야인 광학부품분야의 기술개발과 장비도입을 완료했으며,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홍준기 사장은 "KJ프리텍은 정밀부품 분야에서 닮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BLU, FLU, Lens 등 광학부품분야에서도 세계시장에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앞장 설 수 있는 기술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CBL

컬러 컨트롤 기자재부문 세계 최고를 향해 연구와 투자에 매진

(주)CBL(대표·김현주)은 2000년부터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의 '원색' 촬영의 생명인 '색온도'를 컨트롤(Color Temperature Control)하는 제품개발에 착수하여 2006년 1차로 'CBL Lens'를 탄생시켰다.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로 촬영 후 원래의 이미지와 다르게 노란색, 푸른색, 붉은색 등이 과다 표현되어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CBL Lens의 기능은 어떠한 광원의 조건에서도 원색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CBL은 지난 5월 한국광학기기협회에서 주최한 '2006 사진영상기자재전'에서도 이 제품을 전시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현재 외국 바이어들로부터 오더가 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형 영화촬영장비와 방송장비 등에도 휴대가 간편하며 손쉽게 컬러&화이트 밸런스를 세팅하여 '원색촬영'을 할 수 있는 '컬러 컨트롤보드' 등 4종류의 새 아이템을 개발, 생산단계이며, 발명특허 획득과 동시에 출시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현주 사장은 "CBL Lens의 출시로 인하여 복잡하고 획일적인 커스텀기능의 메뉴를 골라서 촬영을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게 되었고, 디지털백 및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는 모든 프로와 스튜디오, DSLR 유저들이 손쉬운 프리셋 기능으로 원색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디지털사진의 획기적인 진보"라 말하고 "세계 컬러 컨트롤 부분 시장을 우리 기술로 평정한다는 목표로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번 한국광학기기협회 가입을 계기로 회사발전과 함께 한국광학기기 협회가 날로 번창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